

# 산업폐수 정화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발돋움

- 호마상사 -

공해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산업폐수로 인하여 우리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에 새로운 기술제휴와 공해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균의 발명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호마상사에서 미국 Sybron Biochemica 社와 기술제휴를 하여 폐수처리 방법의 새로운 차원을 열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호마상사(대표 나승진)는 1979년 설립되어 그동안 산업폐수를 정화시키는 약품판매 회사로써 일익을 담당해 왔는데, 설립한지 4년만에 자체에서 제조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일본, 대만, 필리핀, 캐나다등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취급 종목은 물처리관계에 사용하는 약품과 중금속, 소독제를 시판하고 있는데 80%는 자체에서, 20%

는 수입하여 오는 실정으로 있어 외화 절감을 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고 특히 지난 미국 Sybron Biochemica 社와 기술제휴는 이러한 의미에서보면 의의가 깊은데 사이브론社는 공업폐수에 대한 생물적 산화를 촉진하는 세균을 시판하고 있는것으로 서로 다른 특수한 폐수용 세균을 20종이나 보유하고 있어 돌연변이와 선택을 이용하여 특수한 분해능력을 가지게 하고 몇 종류의 응용범위에서 사용되는 세균의 혼합체로서 시판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산업용 폐수처리의 생물학적 산화분해에 도움을 주는 Bi-chem 1,000시리즈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 박테리아 제제를 유전공학적으로 개발하여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하고 있다고, 폐수의 양적, 질적변화가 심하면 생물학적인 활성이 중지되고 하수박테리아(Sewage-Bacteria)를 이용한 일반적인 하수처리 방법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뿐아니라 정교한 생물학적인 처리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시설내에서 신진대사를 할 수 있는 미생물이 존재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산업폐수를 효율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제제가 필요했던 호마상사는 이밖에도 닉산화학(일본) 니온데구노(일본) 社와도 교류하며 활발한 판매대열에 끼어들고있는데 앞으로는 울산에 있는 본사공장을 서울근교에 이전하여 1,200평규모의 대단위 공장을 증축할 계획이며 자체 균배양실에서 실험실까지 갖추어 해외시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

나승진 사장(현장에서)

